

동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상처·치유 공감



황학주의 제주살이 (50)

예술공간 이아 '나의 치유'전 100여명 도민 작가의 이야기 내년 6월말까지 이아살롱에서



지난해 예술공간 이아는 미루나무 꼭대기창작소와 협업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처와 치유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의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도민 참여자들은 '나를 치유하게 하는 것'을 캔버스에 그리며, 서로의 상처와 치유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결과물을 예술공간 이아 기획전 '삶으로

서의 사유'에서 선보였다. 당시 짧은 전시기간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다시금 전시가 마련됐다. 지난 1일부터 예술공간 이아 3층 이아살롱에서 열리고 있는 2022 예술공간 이아 공간잇기프로젝트 '나

의 치유' 전시다. >>사진 전시는 상설로 진행되며, 이아살롱을 방문하면 100여명의 도민 참여작가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번 전시

를 통해 '나의 치유' 프로그램을 예술공간 이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술공간 이아 도민참여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도 잡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가는 이아살롱에 전시해 '예술치유 공간'의 면모를 보여주려고 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 '더불어 공감하는 예술'을 제공하며 치유예술플랫폼 예술공간 이아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오른지기자 eioh@ihalla.com

찾아오는 사람들

대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월정리다 보니 좋은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내가 커피값을 안 내도 되고, 다른 하나는 지인들을 보다 수월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있어 제주에 오는 반가운 벗들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일정이 빠듯하다 보면 "왔다 간다"고 전화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초 갑작스레 월정리에 카페를 열고 일주일에 두어 번 나도 나가 앉아 있게 되니까 카페 구경 삼아 자연스럽게 나를 만나러 오는 지인들이 늘었다.

넉 맥을 찾아갔을 때 부엌에서 과일과 과자 등을 내왔고, 이내 방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그게 첫 만남이었다. 단아하고 단단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오규원 시인의 부인이자 시인이었으며, 나들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일정이 그때 두 분의 시를 다 좋아하는 신진 시인이었다. 그해가 거의 저물었을 때 한 번 더 선생님 댁에서 뵈었다.

사실 카페를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이병을 시인이었다. 그는 카페가 개업을 하기도 전, 내가 백 년 된 제주 구옥을 리모델링하고 있을 때 소식을 듣고 달려와 엄청 혼수를 하고 갔다. 시인이자 여행작가로 본래 세계 여행을 많이 하고 좋다는 곳을 일 삼아 다니는 지라 공간 감각과 장소에 대한 깊은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니 책 보고는 할 말이 많았던 셈이다. 예를 들면 "선생님, 창은 밖에서 주방이 보이게 이렇게 내시고요. 여기 턱은 하나 없애고, 가능하면 화장실은 밖으로 빼는 게 좋겠어요."하는 식이다. 나는 일부 그의 의견을 반영해 가능한 존집을 그대로 살려서 생전 해보지도 않은 카페를 덜컥 오픈하게 됐다.

4·3과 관련한 다큐를 찍는 일로 제주에 왔다가 내가 하는 카페를 일부러 찾아온 김옥영 작가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든다. 71세의 백발의 여인이 되어 다시 본 그분에게선 남들의 호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의 행복감과 그에 따른 고독감 같은 게 감돌았다. 두 시간쯤 기본 좋은 멋진 오후를 보내며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는 즐겁고 상큼하며 옛 추억들을 끄집어내는 촉촉한 재미가 좋았다. 최근에 어디선가 읽은 인터뷰 기사에서 그분은 작가로서 세상을 향해 말한다 "선생님, 창은 밖에서 주방이 보이게 이렇게 내시고요. 여기 턱은 하나 없애고, 가능하면 화장실은 밖으로 빼는 게 좋겠어요."하는 식이다. 나는 일부 그의 의견을 반영해 가능한 존집을 그대로 살려서 생전 해보지도 않은 카페를 덜컥 오픈하게 됐다.

오늘 기분이 좋았던 것은 서울에서 '한국 다큐의 대모'라 불리는 김옥영 작가가 오셨기 때문이다. 한 장의 스케치 같은 단편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분은 내가 등단 직후 오규원 선생

그저 그런 선생인 나도 가끔은 제자들의 작품이나 생각, 행동에 끼어들지만 내가 선생의 자격으로 딱 부러지게 그런 말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야기는 언제나 삶 또는 '인간'으로 돌아간다. <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음악산업 교류의 장... '2022 제주 뮤직 위켄드'

이달 30일 블랙박스 공연장 'BeIN:(비인)'에서 'K-Indie' 주제 세미나와 제주 뮤지션 쇼케이스

레이블산업협회, 루비레코드, 콜스뮤직, 주식회사 엠피엠지,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미러볼뮤직, 엠와이뮤직 등 총 24개사의 국내 레이블사가 참여한다.

제주 최대 규모 음악산업 교류의 장인 '2022 제주 뮤직 위켄드 (JEJU MUSIC WEEKEND)'가 이달 30일 블랙박스 공연장 'BeIN:(비인)'에서 열린다.

초청해 제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제주 음반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뮤지션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유관기관을 비롯해 (사)한국음악

세미나는 K-Indie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전략 및 지역음악창작소 협업사업 모델 제안 등 2가지 주제로 음악 전문가와 진흥원 및 유관기관이 각각 발표를 맡는다. 쇼케이스는 제주 음반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ELLY, 이소, 전찬준, 흥조밴드 등 총 4명의 제주 지역 뮤지션 공연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으로 입장권을 제한할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구글폼 (<https://forms.gle/mqFRvttVY4z6pHCW7>)을 통해 하면 된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지역 뮤지션들과 음악산업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가 제주 대중음악산업의 발전에 지속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른지기자

폐해너복의 재구성

진주아 제주갤러리 개인전 여성·생명·환경 의미 탐구



진주아 작 '숨'

버려진 해너복이 낯설고 기이한 생명체로 재탄생됐다. 서울 인사동의 제주갤러리에서 제주 출신 진주아 작가가 폐해너복을 해체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생명체로 만든 조소, 설치 13점이 선보여지고 있다.

주제를 통해 정체성과 자아의 문제를 탐구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폐해너복을 업사이클링 한 오브제 작업을 통해 여성, 생명, 환경의

의미를 다룬다.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제주갤러리는 "작가는 생계를 위한 작업복에서 해양 폐기물로 변화하는 해너복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인간 육체에 깃든 시간성을 표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작품 표면에 두드러진 가시의 형태들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기괴한 형태들은 제주 해너복의 힘든 노동과 상처, 삶의 흔적뿐만 아니라 심연의 바다에 대한 상상력과 무의식의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표출한다"고 소개했다. 오른지기자

그녀들의Am '공간데이' 계속

매월 첫 번째 일요일 '공간데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가족극을 선보이고 있는 극단 그녀들의Am이 하

반기에도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9월 1일극 '파란여우'에 이어 10월 2일 팝업 인형극 '루비가 사라졌어요', 11월 6일엔 제주신화극 '가면장악기' 공연이 예정돼 있다.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복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